

문화행사 줄줄이 중단... 박물관·미술관·극장가 썰렁

불안감 커지는 광주·전남... 국제행사도 잇따라 차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외에서 예정된 공연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교류행사, 지역축제가 연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순창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가 남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근 담양과 광주 등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는 7월 초 개막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있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계도 큰 타격=광주문화재단이 중국에서 열기로 했던 '2015년 정음성음악축제'가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기가 되는 등 문화 행사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7일 "오는 11~12월 이틀간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음성음악축제는 중국 창사시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창사시 정부는 지난 5일 "메르스 확산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행사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내왔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무용예술단, 봉산초등학교 소리나무 중창단 등 공연단 90여명과 중국을 찾은 예정이었다.

중국 측의 거부에 따라 2015년 정음성음악축제의 중국 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광주문화재단은 메르스가 잠잠해지며 오는 10월 재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연장 대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최근 국악 전용극장 남도소리유희터의 문을 열고 대대적인 개관 기념 공연을 준비했지만 메르스 탓에

대부분 취소했다. 이곳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경북도립국악단, 목포시립무용단, 광양시립국악단, 국립남도국악원, 국립국악원, 정주시립국악단 등 타 시·도 국악예술단의 초청공연을 계획했지만 대부분 취소됐다. 또 매주 토요일 열렸던 토요일공연의 경우 지난 6일 공연을 취소했으며 향후 공연도 당분간 쉬기로 했다.

그밖에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는 당초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6월 행사를 오는 8월 14일로 연기했다. 메르스의 여파로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시립미술관 등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도 줄어들었다.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 지난주부터 손 세정제 등을 곳곳에 비치하고 관람객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한편, 극장가와 가요계도 메르스 공포에 손을 놓고 있다. 영화 '연평해전'의 개봉일이 연기됐고, 영화 관객도 줄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토요일인 6일 전국 극장에는 68만7천872명의 손님이 들었다.

이는 전주 토요일보다 19.2%, 2주 전 토요일보다 23.5%, 3주 전 토요일보다 19.5% 줄어든 수치다. 금요일인 5일에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광주 극장가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은 적지만 역시 관객 감소가 눈에 띄었다. 6일 관객 수는 3만287명으로 전주 토요일 3만 2042명보다 1900여명 줄었으며 5일 관객 수는 1만2983명으로 전주보다 631명이 감소했다.

◇지역 축제·행사도 '타격' =담양군은 9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열려던 세계 대나무 박물관 D-100일 행사를 취소했다. 박

중요청 정음성음악축제 연기

대나무박물관 행사 '뒤편'

95개교 수학여행 취소·연기

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박람회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준비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메르스 여파가 확산함에 따라 이를 전격 취소했다. 지역 축제도 메르스 확산 여파로 취소되고 있다.

신안군은 5일부터 나흘간 지도읍에서 열릴 '신안벼어망 농수산물 장터축제'를 취소했다.

6일부터 이틀간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열릴 예정이던 '광양매실 직거래장터'와 '1박2일 힐링캠핑'행사도 취소됐다.

◇광주·전남 95개교 수학여행 취소·연기=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 현재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을 취소 또는 연기한 학교가 광주는 29개교, 전남은 66개교 등 95개교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이번 주 출발 예정이었던 수학여행이 모두 취소됐다. 이들 학교는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수학여행을 계획했지만, 대구와 전북 등 비교적 남쪽 지역도 메르스 안전 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남·북 지역으로 계획했던 체험활동 계획도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전남의 한 학교는 중국 난징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등 해외 수학여행 취소도 잇따라 전망이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꾸려 메르스 대응에 나섰다.

각 가정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 메르스 예방법을 알리는 한편, 환자 발생시 휴교조치를 내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차단 대책 골머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조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의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FISU "광주U대회 영향 없을 것"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참가국·조직위에 공식서한 대회 취소·연기설 차단 나서 대만 등 일부 불참 움직임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7월 열리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광주 U대회개최를 앞두고 개최국 내에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면서 대회 취소·연기설 등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불신요인들이 전파된 데 따른 차단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FISU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진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힌데다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U대회 참가 취소 여론마저 형성되면서 국내 메르스 확산 여파에 따라 자칫 대회 개최 및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

회는 7일 "U대회 주최기관인 FISU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대회 참가국과 조직위에 공식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FISU는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한 메르스가 광주U대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FISU)도 이번 사태의 진전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FISU는 또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번 사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한국 의료진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국 검열이나 여행, 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도 권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FISU는 "조직내 의무위원회가 광주대회 U조직위와 함께 메르스 증상관찰 보고, 접촉보고, 고립 및 격리방안에 관한 엄격한 행동규칙을 규정했다"며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바이러스성 발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고, 그러한 대응방법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FISU의무위원회는 다만 "이번 광주 U대회 참가자가 지킬 수칙으로 최근 한 주 이내에 전염성 질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했거나 열이 수반할 경우 여행금지 권고한다"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열이 나고 급성질환이 발생하면 선수촌 병원이나 대회장소 의료실에 보고할 것과 손 씻기 등 개인별 위생관리 철저,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 중국시보에 따르면 대만의 황웨이저(黃偉哲) 등 일부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전날 대만 체육부 측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 광주 U대회에 선수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만 체육부는 원칙적으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만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236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달 27일 선발대를 보낼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르스 초당적 협력"...여야 특위 설치 합의

'4+4 회동'...광주U대회 등 국제행사 차질 없게 지원

여야는 7일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사태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이른바 '4+4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여야는 메르스 확산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평택 등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크로드 경제 2015' 등 국제행사가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 권한에 대한 일부 혼선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조사 및 확진 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곡점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